2024년 12월호 (제405호)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 悅親心 — 독서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독서가이 열친심

勉爾孜孜 惜寸陰 —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면이자자 석촌음

老矣無能 徒自悔 —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노의무능 도자회

頭邊歲月 苦駸駸 —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흐르도다.
두변세월 고침침

遺子滿籯金 —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유자만영금

不如敎一經 —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불여교일경

此言雖淡薄 —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차언수담박

爲爾告丁寧 —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위이고정녕

시조(始祖) 판서공(諱 唐) 세일사 봉행

시조 판서공 세일사 봉행

시조 판서공 세일사를 마치고

2024년 11월 2일(토, 음력 10월 2일) 12시.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산 85번지(광릉 1길 23) 광주이씨 시조 판서공(諱 唐) 묘소에서, 세일사(1369년 서거)가 성대히 봉행되었다. 새벽에 비가 내려 많은 종인들이 걱정을 하였으나, 해가 뜨면서부터 비가 그치고, 화창하고 포근한 날씨로 변하여, 후손들은 선조의 음덕으로 제례를 모시게 되었다면서 기뻐하였다.

서울에서는 참배 후손들을 태운 임대 버스가, 아침 7시 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출발하여, 11시 50분경 묘역에 도착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임대버스 15대와 승용차 등을 이용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온 700여 명의 봉행 후손들이 묘역을 가득 메웠다. 오랜만에 만난 종인들은 반가움과 끈끈한 혈육의 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였다.

전날부터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제수 준비는 물론 많은 종인들이 참석할 것을 예상하고, 점심 식사 등 행사 준비를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서둘러 진행 분정을 위한 협의와 준비가 끝나고, 곧 묘역 주변 장내를 준비하면서 제례를 봉행하기 위해 참배객들은 묘전(墓前)에 올라 정렬하였다. 대종회 양재 총무이사의 참석 내·외빈 소개와 주영 대종회 회장의 인사가 있은 후, 제관 분정 내역 발표를 시작으로 제례가 봉행 되었다. 제례는 초헌관에 대종회 주영 회장, 아헌관에 십운과공종회 주성 회장, 종헌관에 영천최씨 최사간(司諫 崔元道) 후손 최정한 선생이 헌작하였으며, 집례에 종민, 종덕 현종, 축에 종길 현종, 집사에 문재, 웅재, 덕수, 영희 현종이 맡아,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봉행하였다.

제례 봉행을 끝낸 제관 및 참배 후손들은, 충노연아(제비)의 무덤에 망배를 올리고, 시조공의 묘소 뒤에 위치한, 최사간의 모친 영천이씨 묘소에 제물을 진열하고 예를 올렸다. 이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보은지정(報恩之情)의 절차이기도 하다. 제례 봉행을 모두 마친 종인들은, 묘소수호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와 음복을 함께하며, 그동안의 지정을 나누는 흐뭇한 시간을 가진 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2시경 각자의 교통편으로 귀가 길에 올랐다. 이날 제례 봉행을 위해 봉사해 준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 및 가족, 칠곡종친회, 제례를 주관한 문경공파종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시조공(始祖公, 증 판서 諱 唐)의 탄생하신 연도는 알지 못한다. 경기도 광주(廣州)에서 세거한 지 몇 대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대로 재사현인(才士賢人)이 많았음에도 드러나지 않다가, 고려말에 이르러 판서공 휘 당(諱 唐)께서 과거에 응시하여 국자감 생원(國子監 生員)이 되면서, 광주를 관향으로 하는 씨족이 신흥사대부로 성장하게 되니, 광주이씨(廣州李氏)이다.

광주이씨를 이야기할 때, 둔촌(諱 集) 선생과 부친이신 판서공(判書公 諱 唐)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광주이씨 가문은 실제 존재했었는지조차 불확실할 정도로, 소목이 전해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고려말에 이르러 광주의 향리였던 판서공(諱 唐)이,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중소지주로서, 국자감(國子監) 생원(生員)에 급제하고, 당시 광주 목사의 딸인 인화이씨(仁華李氏)와 혼인하면서, 중앙 정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신흥사대부로 번창하게 되었는데, 두 분의 혼인에 관련된 이야기는 설화로 전해오고 있다.

판서공은 광주목사(廣州牧使)의 딸인 인화이씨(仁華李氏)와의 사이에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 아들 인령(諱 仁齡)은 경선고사공(慶先庫使公), 둘째 아들 원령(諱 元齡)은 둔촌선생(遁村先生), 셋째아들 희령(諱 希齡)은 지군사공(知郡事公), 넷째아들 자령(諱 自齡)은 십운과공(十韻科公), 다섯째아들 천령(諱 天齡)은 보현과공(補賢科公)으로, 우리 광주이씨 발흥(發興)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오자등과(五子登科)를 이루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5형제 중 둘째인 둔촌선생의 후손들과 넷째인 십운과공의 후손들만이 그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공민왕 17년(1368) 둘째 아들 둔촌(諱 集)선생이 역승(逆僧) 신돈(辛旽)의 만행을 비판하고,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되자, 노령(老齡)에 아들의 등에 업혀, 피난길에 오르게 되어, 낮에는 숲속에 숨고 밤에만 이동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문경새재를 넘어 경상도 영천에 이르러, 둔촌의 동년(同年)인 천곡(泉谷) 최원도 가(崔元道 家)에 피신하여, 그의 다락방에 은둔하여 생활하던 중, 이듬해에 돌아가시게 되니, 최동년(崔同年)은 자신의 묫자리에 정성껏 예의를 갖추어 모셨다.

천곡은 둔촌의 부(父)를 친부모처럼 봉양하고, 둔촌 부자도 자기 집처럼 마음 편히 지냈다. 그러나 이듬해인 기유년(1369)에 판서공께서 갑자기

서거(逝去)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른이 돌아가시니, 아무 준비도 없었음은 물론, 장례도 비밀리에 치러야 했으므로, 여간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천곡은 자기가 후에 쓰려고 지어 놓은 수의(壽衣)를 내어다가, 예의(禮儀)에 어긋남이 없이 빈 염(殯殮)을 갖추어, 슬퍼하기를 친상(親喪)처럼 하고, 자신의 신후지지(身後之地)로 정해놓은 모부인[母夫人, 고려국 지울주사(知蔚州事) 울산군(鬱山君) 영천인(永川人) 이중영(李仲榮)의 장녀 고려 숙부인 영천이씨)의 묘분(墓墳) 아래에 장사(葬事)를 모시게 하였다.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남쪽 나현 자좌(도유리 85)로, 오늘날 전국 8대 명장지의 하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옥녀직금체(玉女織錦體) 또는 야(也)자형의 길지이다. 이에 얽힌 두 분의 우정 이야기는 지금까지 회자(膾炙)되며,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과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곳에 묘를 마련한 뒤, 둔촌선생의 후손들은 대대(代代)로 영귀(榮貴)하게 번성(繁盛)하니, 판서공은 조선조(朝鮮朝)에서 자손(曾孫 右議政 仁孫)이 귀하게 되어, 자헌대부 이조판서겸 지의금부사보 경연관 서연관 성균관좨주(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補經筵官書筵官成均館祭酒)에 증직되었다. 뭇사람들이 말하기를 손(客)이 주인의 자리를 빼앗아서, 영남(嶺南)에서 가장 이름난 묘(8대 명당지)가 되었다고 전해오는데, 광주이씨 둔촌의 후손들은 자신의 사후지지를 내어준 천곡의 이러한 고마움에, 산 아래에 보은당(報恩堂 지금은 터만 남아 있음)이란 사(舍)를 지어 놓고, 선생의 은혜를 추모해 왔으며, 제사를 모시거나 관직에 오른 후손들이 성묘(省墓)를 하게 되면, 반드시 천곡의 모부인(母夫人) 영천이씨의 묘(墓)에까지 아울러 예(禮)를 올리고 있다. 또한 최씨와 이씨의 두 집안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비(연아, 제비)의 충절을 잊지 않기 위해, 제비의 무덤 앞에 술과 밥을 지어 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비의 무덤인 연아총(燕娥塚)을 관리하며 해마다 제사를 지내주고 있다.

시조비(始祖妣) 정부인(貞夫人) 인화이씨(仁華李氏) 세일사 봉행

시조비 정부인 인화이씨 세일사 봉행

시조비 정부인 인화이씨 세일사를 마치고

2024년 11월 4일(음 10월 4일) 월요일 11시.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산24-1번지(하남대로 888) 소재 시조비 정부인 인화이씨 묘소에서, 130여 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날씨가 흐려 비가 내릴까 걱정을 했으나, 다행히 날씨가 좋아 묘역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후손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그동안 소식과 안부를 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대종회에서는 일찍부터 참배를 위해 오시는 후손들이 추위를 녹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따뜻한 오뎅국을 준비하여 속을 데우도록 하였다. 후손들이 묘전에 정렬한 후, 참석한 내·외빈의 간단한 소개와, 대종회 주영 회장의 인사를 듣는 시간이 있었다.

경기남부청장년회 회원들의 열정어린 봉사로 주변이 정리되고 제례가 봉행되어, 초헌에 문숙공파종회 용중 회장, 아헌에 목사공파종회 춘신 회장, 종헌에 광천부원군파종회 성호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금년도 제례 주관 지파인 광릉부원군파종회에서 집례에 종봉, 승재 현종, 축에 만재 현종, 집사에는 병무, 철래, 종경, 종철 현종이 맡아 경건한 분위기 속에 봉행 되었다.

제례 봉행을 마친 후손들은 묘전에 자리를 깔고 질서정연하게 앉아 집행부에서 준비한 도시락과 음복으로 점심을 대신하고 귀가하였다.

성남지역 선대조(先代祖) 세일사 봉행

2024. 11. 5(화. 음 10월 5일) 10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3-11번지(중원구 둔촌대로 320) 둔촌선생 묘역에서는, 선조의 세일사를 봉행하기 위해 전국 경향 각지에서 400여 명의 후손들이 찾아, 화창한 날씨 속에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이날은 1대조 이신 둔촌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조님들의 세일사를 봉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오전 10시 30분에 내빈 소개와 대종회 주영 회장의 인사가 있은 뒤, 제관의 분정내역 발표 후 곧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둔촌선조의 세일사에는 초헌에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 아헌에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종헌에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제례의 집전은 문경공파종회에서 맡아 집례에 종민, 종덕 현종, 축에 종길 현종, 집사에 문재, 웅재, 덕수, 영희 현종이 맡아,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봉행하였다.

둔촌선생 세일사를 마친 후에는 곧이어 맞은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87-2(중원구 시민로 50) 소재 둔촌 선생의 큰 아드님이신 청백리공(諱 之直) 묘역으로 이동하여, 11시 30분 묘소 앞에 정렬하여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청백리공 세일사에는 초헌에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아헌에 광원군파종회 석래 회장, 종헌에 참판공파종회 선래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제례의 집전은 광릉부원군파종회에서 집례에 종봉 현종, 축에 만재 현종, 집사에는 병무, 철래, 종경, 종철 현종이 맡아 수고해 주었다. 제례를 마친 후손들은 묘역 아래 대원공원에 마련된 식사 자리에서, 도시락과 음복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잠깐 동안의 덕담을 나누고 인근 사인공(諱 長孫), 관찰사공(諱 禮孫), 광원군(諱 克墩) 선조의 세일사를 봉행하기 위해, 각자 묘역으로 바쁜 발걸음을 옮겼다.

둔촌선생 세일사 봉행

청백리공 세일사 봉행

충희공(諱 仁孫) 서세 561주기 세일사 봉행

충희공 세일사 봉행

충희공종회(회장 경래)에서는 2024년 11월 6일(수) 11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신지리(236-36)에 소재한 묘소에서 충희공(諱 仁孫) 선조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세일사에는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을 비롯하여 대종회 주영 회장, 용두 상임부회장,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각 지파 종회 회장 및 집행부 임원 등 120여 명의 직·방손이 참석하였다. 이봉(二峯) 문경공댁 종민 총무의 진행으로, 내빈 소개, 경래 회장 인사와 충희공 선조님 행적을 소개하였고, 이어서 대종회 주영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곧이어 제례를 봉행하였는데, 분정은 초헌례에 대종회 주영 회장, 아헌례에는 관찰사공 종회 재석 회장, 종헌례에는 광원군파 종회 석래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집례에는 삼봉(三峯)댁 종성 부회장, 축에는 우봉(牛峯)댁 만재 부회장, 좌 집사에는 삼봉댁 영래, 이봉댁 영희, 우집사는 우봉댁 종철, 오봉(五峯)댁 무환 현종이 맡아 수고하였다. 이날 엄숙하고 경건하게 제례를 봉행한 뒤 참사 종인들은 묘전에 모여 음복하며 선조님의 음덕을 듬뿍 받았다. 한편 이날 우봉댁 태극기 전도사 주동 현종이 태극기 120여 개를 제작하여 참석자 모두에게 증정하였다. 지면을 이용해서 주동 현종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ㅇ 충희공(諱 仁孫)께서는 조선 초기 1395년(태조4) 부친이신 청백리공(諱 之直)의 차자로 출생하였다. 公께서는 1411년 17세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417년 식년시 문과 동진사로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에 발탁되었다. 이후 사헌부 감찰이 되고 1429년(세종11) 천추사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형조좌랑, 예조좌랑, 사헌부 집의, 판군자감사를 역임하고 예조참의와 경상도 관찰사를 거친 뒤 형조참의가 되었으며 곧이어 사헌부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1453년(단종1) 한성부윤이 되어서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1454년(단종2) 형조참판에 오르고, 곧이어 호조판서에 등용되었다.

1454년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게 되자 호조판서에 재 등용되고, 1455년(세조1) 세조 즉위와 함께 원종공신 2등에 녹훈되었다. 1456년(세조2) 호조판서 겸 의금부 제조를 겸하였으며 이후 충익사(忠翊司)에 들었다. 이어서 판중추원사와 판호조사를 겸하고, 곧 의정부 우찬성으로 승진한 후 1459년(세조5) 의정부 우의정에 대배(大拜)를 받았다. 公께서는 우의정에 대배를 받은 후 곧 잉령치사(仍令致仕)하고 치사한지 3년 8개월 만인 1463년(세조9) 음력 7월 13일 서거 하니 향년 69세이다. 증직이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이고 시호는 충희(忠僖)이다.

– 행적은 문수 총무, 충희공종회 총무 승재 記

지파종회 소식

사인공파종회 소식

■ 사인공(諱 長孫) 세일사 봉행

사인공(휘 장손) 세일사 봉행

사인공파 종회(회장 용화)는 11월5일(화) 13시 30분 사인공(휘 長孫)선조와 아드님 대사간공(휘 克圭) 세일사를 봉행하기 위하여 대구와 창녕지역 후손들을 태운 임대버스가 새벽 일찍 출발하여 성남 선영에 도착하였다. 먼저 경향 각지에서 도착한 종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기다리다 시간이 되어 오전에는 둔촌선조와 청백리공 세일사를 봉행하고, 대원공원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대신하고, 사인공선조의 묘소로 이동하였다. 금년 세일사에는 대종회 용두부회장, 문숙공 종회 용중회장, 목사공 종회 춘신회장, 광천부원군 종회 성호회장, 광릉부원군파 종회 승재재무이사 등이 참배하였다.

서세 604주기 사인공 선조(휘 長孫) 세일사를 봉행하기에 앞서 내빈소개가 있었고, 이어 분정내역 발표에 초헌관에 본손 석래 경운재공 회장, 아헌관에 대종회 용두부회장, 종헌관에 광천부원군 성호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축에는 본손 용환재무이사 집사에는 학재, 준명, 종호, 종식 현종이 집례에는 희재총무이사가 분정되어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이어서 사인공 선조의 묘하에 모셔져 있는 외아드님 대사간공(諱 克圭) 선조 세일사에는 초헌관에 용헌 현종, 아헌관에 문숙공파종회 용중회장, 종헌관에 목사공종회 춘신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축관은 본손 용환재무이사, 집사. 집례는 기 분정된 현종들이 맡아 수고해 주었다. 제례를 마친 여러 종인들은 대사간공 묘전에서 음복을 하며, 선조님들의 음덕을 기리고 백대지친의 정을 나누었다.

음복을 마치고 다시 버스에 올라 대구로 향하면

서 한번 더 백대지친의 정(情)과 조상님의 얼을 되새기니 어느듯 대구에 도착하여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또한 사인공파종회(회장 용화)는 지난 11월 10일(일) 창녕에서 영면한 선조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먼저 현령공(諱 成壽), 교위공(諱 姬奭), 현감공(諱 友慶), 열사공(諱 여극)의 세일사에는 석래 경운재공 회장이 초헌을, 그리고 창녕 입향조인 원정공(諱 정준), 운암공(諱 時老), 諱 팽노, 경운재공(諱 成老)의 세일사에는 용달 현종이 초헌을 諱 필신, 諱 가신, 諱 노농헌공(諱 斗南)의 세일사에는 사인공 종회 용균 전회장이 분정되어 엄숙하게 봉행하였으며, 음복 후 본건물 1층 옥천식당으로 이동하여 오찬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가운데 백대지친의 정을 나누며, 종회발전과 종원간 훈훈한 정을 나누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사인공파종회 총무 희재 記

광릉부원군파종회 소식

■ 광릉부원군(諱 克培) 서세 529주기 세일사 봉행

광릉부원군파종회(회장 봉수)에서는 2024년 11월 12일(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산12-4번지 소재 묘소에서 광릉부원군 서세 529주기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세일사에는 본 종회 봉수 회장을 비롯해서 대종회 주영 회장, 각 지파 종회 회장 및 집행부 등 150여 명의 직·방손들이 묘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세일사를 엄숙히 봉행하였다. 문수 총무의 진행으로 내빈 소개, 봉수 회장 인사, 대종회 주영 회장 인사, 충희공 종회 경래 회장 인사, 관찰사공 종회 재석 회장 인사 와 광천부원군파 종회 성호 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그리고 대종회 前 걸재 총무이사로 부터 찬시(讚詩) 우봉(광릉부원군의 號)께 드리는 시(詩)가 낭독되어 묘전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이후 분정 발표와 함께 모두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세일사에 임하였다. 헌관 분정은 초헌례 봉수 회장, 아헌례 대종회 주영 회장, 종헌례에는 참판공파종회 선래 회장이 헌작하였다.

집례는 종봉 화수회 총무, 축에는 삼봉댁 종성 부회장, 좌 집사에는 시하(오봉댁 총무) 철래 본 종회 임원, 우 집사에는 종두(삼봉댁 총무), 덕수(정재공종회 총무) 현종이 맡아 수고해 주었다.

찬시(讚詩) 우봉(牛峰)께 드리는 글

공의 이름은 나라에 으뜸이고,
덕행(德行)은 세상에서 으뜸이네
큰 도량(度量)은 바다 같아서
가(可)이로써 크게 받았도다.
육관(六官)의 벼슬을 다하고,
삼정승(三政丞)도 다했으며
손에 나라의 중추조화(中樞 造化)를 쥐니
만물(萬物)이 흥작(興作)하도다.
功에 있어서는 일호(一毫 작은 깃털)라도
욕심 없이 담백(淡白)하였고
돌아가 그 집을 보니 문은 可이 새 그물 같구나!
조행(操行 온갖 태도)이 빙옥(氷玉)같이 맑아서
티끌하나 부정이 없었고.
규율과 법도로써 일신(一身)을 다스렸네.
광진 남쪽에 여기가 유궁(幽宮)이라네.
내가 명시(銘詩)를 지어 영원토록 밝히 노라.
– 가선대부 예조참판 겸 예문관 제학 신종호 撰

세일사를 마친 참사자들은 이어서 광릉부원군 파조님의 후손 장자(長子) 도승지공 휘 세충, 공조좌랑 휘 수겸, 유곡 찰방 휘 이건, 장례원 판결사 휘 시무, 광림군 병조참판 휘 정립, 여산군수 휘 현담, 군기사정 휘 원담, 장례원 사의 휘 진담 선조의 합동 세일사를 봉행하기 위하여 자리를 옮겼다. 합동 세일사의 분정은 초헌례에 대종회 용두 상임 부회장, 아헌례에는 이봉댁 경수 회장, 종헌례에는 사봉댁 석래 회장이 각각 헌작하였다. 집례에는 종봉 화수회장, 축에는 본 종회 만재 부회장, 좌 우 집사에는 병무, 철래, 종철, 종경 현종이 맡아 수고하였다.

광릉부원군(휘 극배) 서세 529주기 세일사 봉행

이날 세일사에 각 지파 종회 및 본 종회 각 공계, 참사 종인 등이 정성어린 향촉대(香燭代)를 봉헌해 주셨다. 그리고 이봉댁 경수 회장이 밤(栗)을 진상(進上)하였고, 특히 본 종회 봉수 회장은 종회 모든 행사 때마다 거액의 향촉대를 출연(出捐)해 주셨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해 드린다.

■ 광릉부원군파종회 세일사 준비 및 봉행위원 위로연

광릉부원군파종회 세일사 준비 봉행위원 위로연

2024년 11월 12일 광릉부원군 파조님 세일사 봉행을 마친 광릉부원군파 종회에서는 11월 19일(화) 그동안 종회 봉사자와 세일사를 위해서 봉사한 분들을 초청하여 감사함을 전하고 위로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본 종회 봉수 회장을 비롯해서 만재 부회장, 충희공 종회 경래 회장, 대종회 용두 상임 부회장, 삼봉댁 성호 회장, 종성 부회장, 오봉댁 충교 회장, 근환 부회장, 대종회 前 걸재 총무 등 25명이 참석하여 숭조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황금오리 능이 백숙집 식당에 모인 일행은 문수 총무의 위로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봉수 회장의 감사 인사에 이어 식사와 반주를 들며 분위기 무르익자, 봉수 회장의 건배 제의와 성호 회장, 충교 회장, 경래 회장 순으로 모든 분의 건강을 기원하고, 10개 지파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가 이어졌다. 위로연을 마친 일행은 찻집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차담회를 가진 후 이날 일정을 모두 마쳤다.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

– 광릉부원군파 종회 총무이사 문수 記

문경공파종회

■ 문경공파 안악군수공(諱 有慶) 세일사 봉행

문경공파 양호당종회(회장 유래)에서는 전북 남원시 주생면 영천리 재실 사존재(思存齋)에서 2024년 10월 26일(토) 11시 안악 군수공(諱 有慶) 선조외 7위의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서울에서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을 비롯한 28분이 임대버스를 이용 참석하였다.

남원에 도착한 일행은 휘 승경 선조의 묘소에 참배하고, 이동하여 휘 유경 선조의 묘소에서 유래 종회장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참배하였다. 이어서 양호당공(諱 德悅)의 배위이신 청풍김씨 묘소가 곡성에서 350여 년 계시다가 남원 주생면으로 천묘하게 된 경위를 들으며 숙연한 마음을 갖게 하였다.(양호당 배위 청풍김씨 천묘시 미이라로 발견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매스컴을 통해 방송되고 광주이씨회보에도 수차례 기고된 바 있다.) 재실(思存齋)로 이동하여 남원의 집성촌 종인들을 비롯한 많은 후손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세일사를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금년에는 서울에서 많은 본·방손들이 참석하여 어느 해 보다 더욱 뜻깊은 세일사가 되었다. 세일사 후 음복하고 남원 시내 원조 추어탕집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종친간에 화합과 단결을 위하고 서로의 건강을 빌며 건배하였다. 맛있는 추어탕과 곁들인 통추어 튀김으로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양호당 종인들과 화합의 자리가 되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에서 세일사 참석을 위해 동행한 종인들은 남원의 광한루에 들러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그 옛날 춘향이와 이도령이 만난 오작교도 건너보며 역사의 현장에서 추억도 만들었다. 주말이라 현장공연도 볼만하다. 모든 제례 준비로 고생한 양호당 종회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발전을 기원한다.

ㅇ 안악군수공(諱 有慶) 선조의 자는 응길(應吉), 호는 주남(周南)이다. 1499년(연산군 5) 4월 15일 도사공(諱 守元) 선조의 5형제 중 넷째로 태어났다. 평소 몸가짐이 매우 근신하고, 가정을 거느림에 법도가 있으며, 형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아우를 벗처럼 사랑하며, 모든 수종자를 동기간처럼 여기니 동고(東皐) 선생께서 항시 그의 효도와 우애를 칭찬하여 존경하고 중히 여겼다.

갑자사화에 가문이 혹독히 화를 당하는 시기에 영화의 길에 나아갈 뜻을 접고, 오로지 경전 연구에 힘써 최고의 원리를 구하기 위하여 퇴계 이황(退溪 李滉), 남명 조식(南冥 曺植), 옥계 노진(玉溪 盧禛), 하서 기인후(河西 金麟厚) 등 제현들과 도의의 벗으로 삼았다. 중종 계묘년에 현량으로 배척되어서 외직 청도와 옥계 현감을 거쳐서 안악군수를 지내시면서 부임한 곳마다 백성들이 편안하니 청백의 칭함을 받아 세 번이나 동장을 차고 후한 포상을 받았다. 1558년 (명종 13년) 5월 4일 안악 관야에서 졸하니 향년 60세이시다. 군민들이 달려와 슬피 울고, 운구하는 날에 좌우로 도열하여 울면서 전송한 백성이 수리에 뻗쳤다. 선조때에 경연 신하들의 건의에 따라서 승정원의 좌승지와 세자시강원 진선에 증직되었다. 배위는 증숙부인 경주 정씨이다.

문경공파 안악군수공(휘 유경) 세일사 봉행을 마치고

ㅇ 안악군수공의 계자인 양호당공(휘 덕열)은 자는 득지(得之), 호는 맹자의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는 뜻을 취하여 양호당(養浩堂)으로 삼았다. 광양군(諱 世佐)의 증손이며, 동고상공의 세째아들로 태어나 부친의 명을 받아 당부에게 출계하였다. 묘소는 양평군 부용리 동고상공 묘소 아래에 모셔져 있다. 양호당공은 중종 29년(1534년)에 태어나 퇴계 이황 선생에게 사사하여 궁리(窮理 :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함)에 정력을 다하여 나아갔으며, 덕을 이루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문학과 재기와 도량이 세상에 드러났다. 명종 정묘년(1567)에 진사에 급제하고, 선조 2년(1569)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병조정랑, 장령, 수찬 등을 거치고, 외직으로 청주목사, 성주목사 등을 거쳤는데 성주에 있을때 임진왜란을 당하였다. 이때 임금이 있는 의주로 가서 군기시 첨정, 사헌부 장령, 사강원 사간 겸 춘추관 편수관을 거친 뒤 승정원의 동부승지, 좌승지를 거치고 임진왜란이 끝난 뒤 선조 31년에 해주로 가서 중전을 모셔온 뒤에 도승지로 제수되었으며

"광국원종공신"의 훈을 받고, 기해년(1559년)에 "가선대부 동지경연사 겸 특진관"으로 승진되어, 사은사로 중국에 다녀오려고 하였으나, 출발못하고 향년 66세로 서거하였다. 양호당공이 성주목사로 재임시 일기를 쓰기 시작하여 "성주기(星州記)", "근왕록(勤王錄)", "헌부간원기(憲府諫院記)", "춘추록(春秋錄)", "은대기(銀臺記)" 등을 남겼는데 "양호당 일기"는 후대에 이 일기를 묶은 것으로 임진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양호당공종회 총무 홍래 記

■ 문경공파 천미공(諱 必行) 401주기 세일사 봉행

문경공파 동고계 천미공종회(회장 홍수)는 2024년 11월 10일 11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묘전에서 동고상공의 증손이며 증좌찬성공(諱 士修)의 네째 아들인 통례원 상례 증 이조참판 천미공(諱 必行) 서세 401주기 세일사와 공의 차자이신 증 이조판서 지평공(諱 厚徵) 서세 358주기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봉행에는 13대 종손 승수, 종회장 홍수를 비롯한 직·방손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분정에는 초헌에 승수 종손, 아헌에 승지공손 종태 회장, 종헌에 판윤공손 호재 회장, 집례에 종웅 총무, 축에 종길 현종, 좌·우 집사에 종필, 건수, 종기, 덕수 현종이 수고해 주었다. 천미공 선조는 선조 기축년 1589년 7월에 태어나, 1623년 36세 늦은 나이에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승문원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많았던 것은 광해군의 폭정 때문이었다. 사헌부 감찰, 보성군수, 경상도사, 통례원 상례를 지내고, 병이 심해 관직을 버리고 여주로 내려가 독서와 벗을 삼으며 자호를 천미거사라 하였다. 그 후 병자호란에 인조(仁祖)가 강화도에 피신할 때 호종하였으며, 이후 여주로 다시 내려와 청빈한 삶을 살았다. 생활이 어려워 죽도 못 먹을 정도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도 마음을 편안히 하고 항상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1645년 2월 서거 하니 57세이다. 숙종조에 이르러 대신들이 상소를 올려 이조참판으로 증직되었으며, 공의 청빈함과 강직함은 우리 후손들이 본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문경공파 천미공(휘 필행) 401주기 세일사 봉행

– 천미공종회 총무이사 종웅記

■ 문경공파 홍천공종회 공원묘역 납골묘 증설공사 완공

문경공파종회 산하 동고계 홍천공종회(회장 종우)는 지난 9월 1일(일) 홍천공종회의 공원 묘역 내 납골묘 증설 공사를 완료하고, 후손들이 모여서 고유제를 모시고, 주변 정화작업을 하였다.

홍천공종회는 당(唐)–집(集)–지직(之直)–인손(仁孫)–극감(克堪)–세좌(世佐)–수정(守貞)–준경(浚慶)–예열(禮悅)–사수(士修)–필행(必行)–후징(厚徵)–수만(綏晩)로 이어졌다. 홍천공(諱 綏晩)은 1648년 3월 20일에 출생하여 홍천 현감 및 형조 정랑을 지내고 1723년 3월 21일 서거하였다. 이조 참판에 증직 되었다.

홍천공종회의 공원 묘역은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313번지 임야에 영면해 계시는 홍천공(諱 綏晩) 선조의 묘하에 조성되었으며, 당시 장례문화의 변화에 대응하여 뜻있는 종원들이 의견을 종합하여, 약 1억원 정도의 기금을 모아서 2004년도에 100기(200분) 평장으로 납골묘를 준공하여서 종회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현재에 이르러 납골

홍천공종회 공원묘역 납골묘 증설공사 완공

묘가 부족하여짐에 따라 2024년도 대의원총회에서 납골묘 증설 건을 상정하여 대의원들이 의결하였다. 6월에 117기(234분) 증설 공사를 완료하고, 이날 공원묘지 증설 공사가 무사히 완료됨을 기념하고자 여러 종친이 참여한 가운데 고유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고유제는 아침 일찍부터 후손 40여 명이 모여서 묘역 전체 정화작업을 실시한 후에, 종성 총무의 경과보고, 종우 홍천공종회 회장 인사말, 고유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고유제를 봉행 후에는 재실에서 며느리들이 준비한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그 동안 납골묘 증설공사를 계획하고, 진행해 주신 집행부에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종원 간 소식을 나누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 문경공파종회 홍천공종회 총무 종성 記

■ 문경공파종회 광문회 추계 정기 모임

문경공파종회 광문회(회장 경수)에서는 성하의 지절이 지나고 오곡이 풍성한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2024년 추계 정기모임을 노량진 수산시장 회센터에서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종회의 꽃인 화수회, 문경공 광문회는 1989년 발족이 되어서 올해 35주년이다. 광문회 취지는 '광주이씨 문경공파 후손으로써 선조의 숭덕을 받들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후손에 대한 충효사상을 고양시키며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신입회원 3명 우천공계 주홍과 철수, 양호당계 용한이 자기소개를 하였으며, 매번 정기모임 때마다 새로운 얼굴이 늘어나는 좋은 현상이다.

오늘 우중에도 불구하고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 대종회 주영 회장,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 원로 원재 대종회 전 상임부회장 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고, 종원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노들나루 명소에서 약 2시간에 걸쳐 계절의 별미 보양식, 새로운 메뉴가 나올 때마다 산하 종회장(숭덕재계 동고 참판공)들은 돌아가면서 건배사를 하여 화기애애한 친목도모에 활력소가 되었으며, 광문회 행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찬해 주신 모든 종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송년회를 기약하면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기념품(참기름 들기름 셋트)을 받고 폐회를 하였다.

– 문경공파종회 광문회 총무 종덕 記

광천부원군파종회

■ 광천부원군파종회 후반기 제례교육 실시

광천부원군파종회(회장 성호)에서는 2024년 10월 29일(화)에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재실(영모재)에서 다가오는 세일사를 대비 제례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 참여하신 종인들은 광천부원군(諱 克增) 파조님를 비롯한 선조 묘전에 참배를 드린 후 깨끗이 정화된 묘역들을 둘러보며 어느 때보다 더웠던 여름날을 잘 보내고 견딘 나무와 잔디 상태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광천부원군 서세 530주기 세일사를 앞두고 헌관과 제 집사를 배정하여 실습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이날 교육에 6개 지역 종회에서 제례 교육자를 추천받아 집사나 축관 등을 이행할 수 있는 교육자를 선정하였다.

광천부원군파 후반기 제례교육 실시

원근각지에서 교육을 위해 아침 일찍 준비하여 온 교육자들은, 예년 같지 않게 따스한 햇살아래 재실 문을 열고도 춥지 않은 온화한 날에 모여 광천부원군 외 7위의 세일사 준비에 열정을 다하였다. 교육자들은 강사(종성 상임부회장)의 지명으로 축문을 제례에서와 같이 낭독하는 교육과 제공한 교육자료를 살펴보며 묻고 답하는 시간도 있었다.

1부에는 축문읽기를 하였고, 2부에서는 각자의 배정받은 자리에서 실전연습을 실시하였다. 연습을 마치고 교육생들은 광주 시내에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삼삼오오 자리하여, 앞으로 더 연습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며 화기애애한 회식 자리가 되었다.

■ 광천부원군(諱 克增) 서세 530주기 세일사 봉행

광천부원군파종회(회장 성호)에서는 2024년 갑진년 세일사를 2024년 11월 7일(목)에 광천부원군(諱 克增) 선조님은 묘전에서, 이하 7위의 선조님은 재실에서 2부로 나누어 봉행하였다. 절기가 입동인 날이지만 춥지 않고 따뜻한 봄날 같은 좋은 날에 대종회를 비롯하여 충희공, 관찰사공, 10개 지파 회장 및 종직자 등 본·방손이 묘전을 가득 메웠다.

종회 성호 회장은 「이렇게 좋은 날을 내려 준 것은 광천부원군 선조님의 음덕이라 생각하며 연일 세일사에 다니느라 고생이 많은데 교통도 불편한 이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다. 종두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내빈 소개 후 성호 회장 인사, 대종회 주영 회장 축사, 종성 부회장의 행장 소개가 끝나고 세일사 봉행을 시작하였다. 영래 현종의 제례 홀기에 맞춰 숭조의 마음을 다하여 세일사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광천부원군(諱 克增) 세일사에는 초헌례에 성호 회장, 아헌례에 대종회 주영 회장, 종헌례에 광원군파 석래 회장이 헌작하였고, 집례에 영래 현종, 축에 종구 현종, 좌집사에 윤수, 석광 현종, 우집사에 정수, 광재 현종이 맡아 수고해 주었다. 이번 세일사에 제주 1박스를 수원지역종회(회장 승재)에서 봉헌해 주었으며, 대종회를 비롯한 각 지파 종회에서 향촉대를 봉헌해 주셨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

광천부원군(휘 극증) 서세 530주기 세일사 봉행

– 광천부원군파종회 총무이사 종두 記

■ 광천부원군파 문정지역종회 가선대부공(諱 鎭彬) 세일사 봉행

광천부원군파 문정지역종회(회장 종관)는 2024년 11월 10일(일) 11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산15-3 선영 가선대부(諱 鎭彬) 선조 묘소에서 서세 192주기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광릉부원군파 문수 총무, 좌의정공파 시하 총무, 온양종회 종구 회장, 정수 총무, 서천종회 종준 회장 등 본·방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엄숙하고 경건하게 세일사를 봉행하고 선조님의 음덕을 듬 받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문정종회 청년회에서 마침 일요일이어서 많이 참석하여 선조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며느리 모임, 출가녀 모임에서 버스 1대를 임대하여 참사하였다.

내빈 소개와 종관 종회장의 인사에 이어 분정을 발표하고 제례를 봉행하였다. 초헌에는 문정지역

종회 장학회 종찬 회장, 아헌에 광릉부원군파 문수 총무, 종헌에 온양종회 종구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축에 종건 현종, 집례에 진재 현종, 집사에 종혁, 윤수, 찬수, 종두 현종이 수고해 주었다. 제례 봉행후 자리를 양평시내 식당으로 옮겨 종친간에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종관 회장의 미소띤 얼굴에서 오늘 문정지역종회 1년의 결산과 2025년도 예산 통과에 대한 총회 겸 세일사 행사를 만족해 하며 기쁘고 행복한

광천부원군파 문정지역종회 가선대부공(휘 진빈) 세일사 봉행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오늘은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환한 웃음이 미소짓는 하루였다. 문정지역종회 종인들의 따뜻하고 반가운 맞이에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세일사 참여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몇 날 몇 일 묘역을 관리(벌초, 잡목제거)하고, 제수 준비 등 모든 제례 준비로 고생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문정지역종회 총무 윤수 記

광원군파종회 소식

■ 광원군(諱 克墩) 서세 521주기 세일사 봉행

2024년 11월 5일(화) 둔촌선조와 청백리공 세일사를 봉행하고, 대원공원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광원군파종회(회장 석래) 종인들과 방손들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3 소재 광원군(諱 克墩)선조 서세 521주기 세일사를 봉행하기 위해 묘전에 집결하였다.

이날 대종회 주영 회장,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 종덕 재무, 광천부원군파종회 종두 총무, 동고상공종회 근배 회장 등 방손과, 광원군 선조의 아들 8형제 중 첫째인 부사공종회 은재 회장, 첨정공종회 천수 회장, 도정공종회 종찬 회장, 충민공종회 종삼 회장, 보성 양진재종회 용호 회장, 前 충희공종회 용식 회장, 前 광원군파종회 용철 회장, 광이국가유공자유족회 용위 회장을 비롯한 직손들은 두 손을 모으고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례를 봉행하였다. 특히, 보성 양진재공종회(회장 용호)에서는 버스를 임대하여 광주에 계시는 종인들을 동승하고 상경하여 광원군(諱 克墩), 감사공(諱 世貞) 세일사에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세일사 일정이 되었다. 세일사 봉행은 윤재 문화유사의 행장 소개에 이어 초헌에 광원군파종회 석래 회장, 아헌에 대종회 주영 회장, 종헌에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집례에 택재 현종, 봉축에 용인 현종, 좌

광원군(휘 극돈) 서세 521주기 세일사 봉행

집사 용춘, 용각(도정공), 우집사 용백, 용각(부사공) 현종이 수고해 주었다. 은행잎 곱게 물들고 구비 구비 고운 색으로 갈아입는 아름다운 이 계절에 광원군 선조의 세일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와 모든 참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광원군파종회 총무 웅재 記

■ 감사공(諱 世貞) 서세 496주기 세일사 봉행

광원군파 감사공종회(회장 점식)에서는 광원군(諱 克墩) 파조의 셋째 아들인 감사공(諱 世貞) 선조 서세 496주기 세일사를 2024년 11월 5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 3 소재 묘소에서 봉행하였다. 이날 세일사는 광원군 선조의 세일사를 마치고 참사원 전원이 이동하여 봉행하였다. 참석자는 동일.감사공종회 점식 회장을 비롯해서 대종회 주영 회장, 주홍 재무이사,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광원군파종회 석래 회장, 광천부원군파종회 종두 총무, 좌의정공파종회 시하 총무, 보성 양진재공종회 용호 회장, 부사공종

감사공(휘 세정) 서세 496주기 세일사 봉행

회 은재 회장, 충민공종회 종삼 회장, 광원군파종회 前용철 회장, 대종회 前 걸재 총무이사, 충희공종회 前 용식 회장 등 60여 명의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숭조의 마음을 다하여 봉행하였다. 특히 이날은 전남 광주에서 직손인 94세의 용출 현종이 참석하여 선조에 대한 후손으로서의 의미를 더 하였다. 분정으로 초헌에 감사공종회 점식 회장, 아헌에 부사공종회 은재 회장, 종헌에 양진재공종회 용호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축에는 병전 현종, 집례에 용인 현종, 집사에 용춘, 용백, 용각(부사공), 용각(도정공)현종이 수고해 주었다.

ㅇ 전라도 감사공(諱 世貞)은 1461년 출생하여 1528년(중종 23)에 졸하였다. 1501년 식년문과 삼등과로 급제하여 별제, 장락원 주부, 사헌부 감찰을 역임하였다. 이후 장악원 사평과 세자시강원 보덕 장례원 판결사, 광주 제주 부사와 전주 판윤, 전라도 관찰사, 첨지중추부사, 도승지, 이조참의, 호조, 예조, 병조, 형조 참의를 두루 거쳐 1528년 이조참의를 역임하고 졸하니 68세였다.

■ 광원군파 양진재공(諱 秀莞) 서세 452주기 세일사 봉행

2024년 11월 10일(일) 11시, 광원군파 양진재공종회(회장 용호)에서는 전남 보성군 겸백면 재실 영모재에서 양진재공(諱 秀莞) 서세 452주기 세일사를 많은 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숭조의 마음을 다하여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이날 용호 회장은 「양진재공 영모재가 2024년

양진재공(휘 수완) 서세 452주기 세일사 봉행

6월 13일 자로 전남민속문화재 제53호로 지정된 가운데 뜻깊은 세일사를 봉행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민속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금채 광주전남종친회장의 특별한 추진력과 종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금채 회장에게 종인들의 마음을 담은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 양진재공종회 문화이사 용정 記

■ 독립운동가 병철(秉澈) 독립지사(獨立志士) 성묘 순례

2024년 10월 27일 광원군파 도정공종회 화수회인 도화회는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공원에 있는 충혼탑에 건립된 병철선조의 독립운동 공적이 새겨진 비석을 찾아 성묘 순례를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부부동반 도화회원 60여 명과 광원군 화수회원 40여 명, 충주 현지 종친회인 충주 종친 회원(주요인사 광희 문경공종손, 충주종친회 전회장 영희), 충주 광복회장, 영일 정씨(병철선조 장인의 증손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문화 행사에 참여한 대종회 주병 문화이사, 현지 종친회인 충주종친회원 및 충주 광복회장, 영일정씨 대표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시행되었는데 1부 행사에서는 용식 도화회 회장의 인사말과 충주 광복회 회장의 축사, 정태준 영일 정씨 대표의 축사, 병철 선조와 가장 가까운 직손인 용철 전 광원군파종회 회장의 축사 및 대종회 주병 문화이사의 축사가 있었다. 외부 인사인 정태준 대표는 영일정씨 대종회 회장, 충주여고 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본인도 종회 활동을 수십년 하였지만 광주이씨처럼 독립유공자 성묘 순례를 하는 성씨는 처음 본다며 진심으로 광주이씨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광주이씨 여러분은 긍지를 가져도 된다고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독립유공자 병철 선조 성묘 순례

2부 성묘 행사에서는 초헌에 용철 전 도정공 회장(전 광원군파종회 회장), 아헌에 윤경로 충주 북부 광복회장, 종헌에 정태준 영일정씨 대표, 축에 도정공종회 종찬 감사, 집례에 도정공종회 도화회 총무 택재, 집사에 도정공종회 전례위원 용각, 도정공종회 회장 종찬, 도정공종회 교재 임원, 선재 종원이 맡아 진행하였다. 아울러 병철지사(秉澈志士)께서 일본경찰의 요주의 인물이 됨에 따라 가족모두 북경으로 피신한 후 행방불명되어 후손이 절손됨에 매년 10월에 행하여지는 충주광복회 주관 위령제에 도정공종회 차원에서 참석키로 충주광복회장과 약속을 하였다.

행사를 마친 순례자들은 근처 남한강 막국수 식당에서 보쌈과 막국수 등 푸짐하고 즐거운 점심식사를 마친 후 도화회 회원 60여 명은 정태준씨 영일 정씨 대표의 안내를 받아 병철지사의 장인묘소에 성묘(참배)를 마치고 묘역에 둘러앉아 보쌈 안주를 곁들인 막걸리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정씨 대표의 배웅을 받고 서울에 올라오니 도화회원 모두 자랑스러운 병철지사 선조의 행적을 찾고 성묘함에 긍지와 뿌듯함을 느꼈다.

– 도정공 종회 총무 택재 記

관찰사공종회 소식

■ 관찰사공(諱 禮孫) 서세 565주기 세일사 봉행

2024년 11월 5일(화) 둔촌선조와 청백리공 세일사를 마친 종인들은 대원공원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삼삼오오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174-8 소재 관찰사공(諱 禮孫) 묘전으로 향했다. 오후 1시 30분이 되어 직·방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서세 565주기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먼저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은 지난 10월 6일 관찰사공 종인의 날 행사에 바쁘신데도 종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여 성원해 주신 덕분에 행사를 성대히 거행할 수 있게 되어 종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하고 오늘 선조 세일사에도 많은 종인들께서 참석해 주어 선조님 세일사를 성황리에 봉행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참석하신 종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하였다. 이날 제례 봉행에는 초헌에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아헌에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 종헌에 병구 석담공 16대 종손이 헌작하였으며 축에는 종진 현종, 집례에 종우 현종과 용면 현종, 집사에 종오, 종균, 홍재, 식래 현종이 수고해 주었다. 관찰사공 세일사를 마친 종인들은 자리를 옮겨 공의 묘소 곁에 영면해 계시는 증손자 참판공(諱 英賢)의 묘소에 세일사를 모시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관찰사공(휘 예손) 서세 565주기 세일사 봉행

○ 관찰사공(諱 禮孫)의 자는 계윤(季胤)으로 청백리공 (諱 之直)의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1434년(세종 16)에 생원의 자격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내금위 사인으로 출발하여 1440년(세종 22)에 사헌부 지평으로서 김하(金何)가 간음한 사실을 탄핵하였다. 1444년(세종 26)에 병조정랑이 되었다가 외직으로 수원부사에 임명되었다. 수원부사로 근무 중에 명 사신을 벽제관에서 잘 응대하여 외관승진 논의가 있기도 하였다. 단종 때에 좌사간대부로 보임되었고 1457년(세조 3)에 황해감사로 승진하였으며, 세조 즉위에 협조한 공로로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2등에 봉해졌다. 형조참의에 임명되었다가 1459년(세조 5) 3월 11일 관압사(管押使)로 명나라에 파견되었다가 40세의 젊은 나이로 황해도 봉산(鳳山)에서 서거하였다. 배위는 송화(松禾)현감을 지낸 밀양 박서(朴曙)의 따님으로 슬하에 참판 극기와 통례 극견을 두었다. 졸기에 이르기를 「관압사(管押使) 이예손(李禮孫)이 봉산(鳳山)에서 죽으니, 부의(賻儀)로 쌀·콩 각각 20석(石), 종이 1백 권(卷)과곽(槨)·송진[松脂]·석회(石灰) 등의 물건을 내려 주었다. 이예손은 광주(廣州) 사람인데 성질이 강개(慷慨)하고 방직(方直)하여 구차하게 남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그 때에 염개(廉介)라고 불렀다. 그가 죽게 되자, 사람들이 모두 애도(哀悼)하였다.」고 하였다.

○ 참판공(諱 英賢)의 자는 희성(希聖)으로 관찰사공의 증손이며 아버지는 증참판 람(諱 擥)이며, 어머니는 목사 이승원(李承元)의 딸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생활이 곤궁했으나, 뜻을 세우고 부지런히 공부하였다. 1525년(중종 20) 사마시에 합격하고 1537년(중종 32)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곧 홍문관 정자에 선임되고 이듬해 다시 탁영시(擢英試)에 병과로 급제해 왕의 총애를 받아 박사·수찬·정언·지평, 교리, 사복시정, 응교, 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응교로 있을 때 명종의 즉위와 함께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윤원형(尹元衡)의 미움을 받아 지방관과 한직으로 밀려나 9년을 지냈다. 다시 등용되어 교리·직제학·승지·종부시정·이조참의·형조참의·한성부우윤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1562년(명종 17) 청홍도관찰사(淸洪道觀察使)가 되었다. 1567년 첨지중추부사로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고, 1568년(선조 1) 동지춘추관사로 『명종실록』 편찬을 지휘하였다. 그 뒤 파직되었다가 1570년 서용되어 한성부좌윤을 역임한 뒤 예조·형조, 공조참판, 개성유수 등을 두루 지냈다. 경연에 나가 시강할 때에는 풍부한 학식과 맑은 음성으로 왕의 칭송과 상을 받았으며, 옥사를 다스릴 때에는 판결이 분명하고 변동이 없어 법정이 숙연했다 한다. 그리고 지방관으로 나가서는 민폐를 덜고 생활을 안정시켜 백성들이 칭송했다 한다. 태종의 외예(外裔: 외가쪽 후손)라 해 중종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 관찰사공종회 총무 종우 記

참판공파종회 소식

■ 참판공(諱 克基) 서세 535주기 세일사 봉행

참판공파종회(회장 선래)는 2024년 11월 8일(금요일) 오전 11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33번지 참판공(諱 克基) 선조 묘전에서 파조이신 참판공(諱 克基) 선조, 아드님이신 음애공(諱 闇), 손자 현령공(諱 熙業)·사과공(諱 熙敬)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세일사에는 참판공종회 선래 회장을 비롯하여 대종회 주영회장, 용두 상임부회장,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 광천부원군파종회 성호 회장, 광원군파종회 석래 회장, 좌의정공파종회 충교 회장, 좌통례공파종회 택수 회장, 문숙공파종회 용중 회장, 그 외 대종회와 각 지파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해 주었다. 특히 전남 영광 집성촌에 사는 후손들은 물론, 울산과 이천 등 전국에서 총 70여 명의 본·방손이 참석한 가운데 용 총무의 내외빈 소개와 참판공(諱 克基) 선조의 행장 발표에 이어, 선래 회장은 참석하신 종친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주영 대종회 회장의 인사와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의 격려와 덕담이 있었다.

참판공(휘 극기) 세일사 봉행

참사자들은 먼저 파조이신 참판공(諱 克基) 선조의 세일사를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봉행한 뒤 음애공(諱 闇), 현령공(諱 熙業), 사과공(諱 熙敬) 선조의 세일사는 합제로 봉행하였다.

참판공(諱 克基) 세일사 분정에는 초헌에 선래 참판공파종회 회장, 아헌에 대종회 주영 회장, 종헌에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께서 헌작하였으며 축에는 강래 현종, 집례에 참판공파 청장년회 백 회장, 집사에 식래, 용권, 용환, 진호 현종이 수고 해 주었다. 그리고, 음애공(諱 闇), 현령공(諱 熙業), 사과공(諱 熙敬) 합제 세일사 분정은 초헌에 참판공파 변자종회 길 회장, 아헌에 광천부원군파 종회 성호 회장, 종헌에 광원군파 종회 석래 회장이 헌작하였고, 축관 및 집례, 집사는 계속 같은 분이 맡아서 수고해 주었다. 긴 시간 동안의 세일사를 마친 참사자들은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준비한 식사를 하며, 종친 간 돈목의 시간을 가진 후 행사를 모두 마무리 하였다.

■ 음애공(諱 闇) 유허비 개수제막식 및 정비사업

참판공파종회는 2024년 11월 23일(토) 11시 참판공(諱 克基)의 아드님이신 음애공 선조 유배지인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에서 유허비를 개수하고 준공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제막식에는 참판공파종회 선래회장을 비롯해서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좌통례공파종회 택수 회장, 통제사공종회 형래 회장, 대종회 용두 사임부회장, 광릉부원군파종회 문수 총무이사, 좌의정공파 시하 총무이사, 근찬교수, 보촌서원 수호관리위원장 준수, 대종회 대의원 용진, 참판공판회장 용호, 재무이사 용권 등 내빈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촌서원 박래호 원장, 영광향교 성금태 전교, 영광군청 문화재담당 과장 등 많은 종인과 지역 유림들이 참석하였다.

유허비 제막식은 보촌서원(원장 박래호)에서 주최하고 영광향교(전교 성금태)에서 후원하였다.

음애공(휘 은) 유허비 개수제막식 거행

음애공 선조 유허비는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570번지 소재에 있었으나 오랜 세월에 풍화작용으로 인하여 비문이 마모되어 희미한 발자취만 남아있어, 이에 참판공파 종회에서는 몇 년전 부터 유허비 정비사업계획을 세우고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구 유허비 비문의 원문을 발췌하고 유허비를 다시 세웠다.

이밖에 주변도 새롭게 단장하고 후학 및 학생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선생의 선비정신을 배우고 함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은 중종대에 현량과에도 참여하지 않고, 1519년 정암 (靜庵) 조광조(趙光祖)를 도우다가 신진사류에 연좌되어 기묘사화에 투옥되었다가 다시 영광 보촌으로 유배되어 생을 마감하였다. 1782년(정조 임인)에 영광 사림들이 보촌서원을 세워 봉향하여 오고 있다.

– 참판공파종회 총무 용 記

■ 좌통례공파 세종종친회 선대 합동세일사 봉행

2024년 11월 24일(일) 세종종친회(회장 기수) 합동 시제가 온화하고 화창한 날씨속에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국촌리 사당에서 전국 각지에서 50여 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례를 봉행한 뒤 숭조돈목의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 일부 종인들은 아들과 딸 등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여 선조에 대한 선·현양의 마음으로 자리를 빛내 주었다.

외빈으로 목사공종회 종익 총무이사, 쌍호당공(諱 重慶) 참판공종회 종우 회장, 사복시정공(諱 暨)종회 종오회장, 부사공(諱 攀)종회 종승 대의원, 별좌공(諱 復慶) 광암종회 종균 회장, 부사공종회 기수 전 부회장 등 직·방손들이 참석해 주었다. 이번 제례는 8대 현감공(諱 悠)선조로부터 15대 선조에 이르는 20위의 세일사를 봉행하는 행사였는데 특히 그동한 묘소가 실전되고 행록을 알기 어려웠던 8대 현감공 휘 유, 9대 도사공 휘 의숭 선조에 대한 행록을 후손 주열 현종이 집요한 추적을 통해 일부 찾아내어 위패를 봉안하고 고유제를 올리는 행사를 병행하였다. 세종종친회는 7대 홍문관 교리공(諱 首慶) 선조를 모시는 육유당(六有堂)종회를 비롯하여, 후손들의 옛 집성촌인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현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도원로 일대)를 기반으로 하는 세종종친회를 구성하여 선대조 선·현양 사업과 후손들의 종인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세종시 국촌리 선대조 사당

– 좌통례공파 부사공종회 회장 주홍 記

문숙공파종회 소식

■ 문숙공(諱 之剛) 서세 597주기 세일사 봉행

문숙공파 종중(회장 용중)에서는 2024년 11월 10일(일) 오전11시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 67-1번지 선영에서 본·방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조이신 문숙공(諱 之剛) 서세 597주기 세일사를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용관(문숙공파 영양종중 회장)현종의 사회로 문숙공 행적 소개, 내빈 소개, 회장인사, 제례분정 발표 등 제례전 의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본 종회 용중 회장은 내빈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각 지파간 세일사 일정이 겹치거나 불가피 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였지만 물심양면의 후의로 참배의 례를 대신 해 주신 대종회 주영 회장님과 각 지파 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대종회 주영 회장님을 대신하여 참석 해 주신 양재 총무이사, 주병 문화 이사, 그리고 전국 각지(수도권, 춘천, 원주, 목포, 창원, 부산, 대구 등)의 먼길임에도 정성어린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종인들에게도 감사와 환영의 말을 전했다. 또한, 용중 회장은 문숙공 파조님의 행적(지면상 내용 생략)을 보충 설명 하면서 너무도 훌륭하신 선조님을 우리 후손들이 우러러 본 받고 자랑으로 여기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제례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숙공 할아버님은 조선 건국 초기 여러 관직을 역임 하시면서 국가 기틀을 확립하고 사회 기강을 바로 잡는데 기여 하셨으며, 일본등 국제 외교 관계와 국가 기본 예법을 정리 하셨고,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데 앞장 서셨다. 그중 하나가 국장에 관한 예장규정을 제정(내용은 지면상 생략) 시행 하셨고, 충령군이 세자 시절 스승으로서 군왕의 통치 교과서라고 할수 있는 대학연의 강연을 통해 정심설을 설파 하심으로써 후일 세종대왕이 성군이 되는길을 이끌어 주셨다.

정심설은 "임금의 학문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근본이며, 임금의 마음이 바르게 된 후에야 신하의 마음이 바르게 되며, 신하의 마음이 바르게 된 연후에야 백성이 바르게 된다" 즉,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는 만고의 진리를 일깨워 주신 것이다. 이어 대종회 양재 총무이사는 주영 회장님이 중요한 일정 관계로 참석 못 하였음을 양해 바라며 내년에는 꼭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인사말을 겸해 덕담과 격려를 해 주었다. 이날 문숙공 파조님 시제의 제례 분정은 초헌관에 본종중 용중 회장이, 아헌관은 대종회 양재 총무이사가, 종헌관에는 용팔(대구) 현종이 헌작 하였고, 축관은 용문(대종회 감사) 현종이, 집례는 본 종회

문숙공(휘 지강) 세일사를 마치고

형래 부회장이 맡아 주었으며, 집사에는 용실(포항)·동영(울진)·용문(대구)·용윤(춘천) 현종이 수고해 주었다. 문숙공 파조님 시제에 이어 동일 권역내 있는 입향조 휘 극령(諱 克齡) 선조님의 시제는 초헌관에 용관(영양문중 회장), 아헌관에 성래(중국), 종헌관에 승재(온정문중 회장) 현종이 헌작 하였고, 축관은 형래 본 종중 부회장이 맡아 제례를 봉행하였다.

제례를 모두 마친후에는 문숙공 선조님 묘전에 둘러 앉아 제수 음식으로 간단히 복주와 음복을 한 다음 온정면 소태리에 소재하고 있는 종중회관 내 식당으로 이동하여 마련된 오찬과 함께 정담을 주고 받으며 종인들 간의 화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금년도 문숙공 선조님의 시제 일정을 뜻깊게 마무리 하였다.

– 문숙공파 형래 부회장 記

목사공파종회 소식

■ 목사공(諱 之柔) 세일사 봉행

2024년 11월 9일 오전 11시, 경기도 하남시 항동 고골 선영,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가을 빛 푸른 날, 산 빛에 가을 색감이 더한 목사공 묘역은 정갈하게 세일사 봉행을 맞이하고 있었다. 2024년 목사공 세일사 봉행을 위하여 경향 각지에서 새벽길을 타고 경기도 하남시 고골 목사공 묘역에 세일사 참사 종인들이 모였다.

오전 9시 서울 구의동 종회장댁에서 춘신 종회장과 종익 총무이사, 문신 재무이사, 재구, 종윤 현종이 제례봉행 제기와 제수를 옮겨 싣고와서 고골 선영에 미리 도착한 범수 부회장과 함께 생각보다 가파른 계단 길을 타고 제수를 묘역으로 들고 옮겼다. 남한산성 자락, 가을 산 공기가 마음을 맑게 했지만 묘역 오르는 계단 길은 숨이 차오를 만큼 만만치 않은 노역이 따랐다. 그만큼 목사공 선조를 찾아뵙기가 귀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범수 부회장과 재구 현종은 바쁜 손길로 유기 제기를 닦고 제수를 진설하였고 춘신 종회장과 종윤 축관, 그리고 종익 총무이사는 세일사 봉행을 위하여 유복과 유건으로 의관을 정제하고 총무이사는 세일사 봉행을 위한 집례 준비를 집사분들과 사전에 중요한 절차를 협의하였다. 오전 10시 40분경 세일사 참례를 위하여 내빈과 종인들께서 계단 길을 오르는 시간에 춘신 종회장과 종윤 축관은 먼저 산신제를 올리고 세일사 순서를 준비하였다. 한 시간 남짓한 사전 준비시간이 어느 결엔가 흐르고 마음이 바빠지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목사공 세일사 봉행은 시작되었다. 이번 세일사에는 목사공파종회 춘신 종회장을 비롯한 목사공의 네 분 아드님 후손 등 많은 직손과 대종회 주영 회장, 용두 상임부회장, 양재·주홍·주병 상근이사 그리고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종회장과 종길 화수회장, 문수 총무이사가 참사하셨고 문경공파종회 명수 현종과 광원군파종회 도정공계 용각 현종께서도 시간을 내어 참사하셨다.

목사공(휘 지유) 세일사 봉행

올해 목사공 세일사는 가장 많은 참례자들이 참사하셔서 숭조돈목의 덕목을 기렸다. 세일사 사전 순서로 내빈 인사 말씀이 이어졌고 목사공파종회 춘신 종회장께서는 "올해 목사공 세일사는 목사공의 네 분 아드님의 후손들이 화합의 정신으로 함께하여 기쁘며 앞으로 목사공파종회가 화합을 통하여 발전하자"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였다. 이어서 대종회 주영 회장은 "목사공께서는 고려조 문과에 급제하시고 성품이 강직하셔서 시대의 불의에 대하여 직설하셔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 그리고 목사공종회가 내부의 갈등이 이어져 불편한 어려움들이 이어졌는데 오늘 화합의 정신으로 한 자리에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한다"며 좋은 인사말씀을 하였다.

2024 목사공 세일사 제관은 초헌에 목사공파종회 춘신 종회장, 아헌은 대종회 주영 회장, 종헌은 목사공파 우윤공계 종화 회장, 축은 종윤, 집사는 치구, 문신, 범수, 영균 종인, 집례는 종익 총무이사가 봉행하였다.

한편 정랑공(諱 貞元)계 횡성현감공종회는 11월 23일 오전 11시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선영에서 입향조이신 현감공(諱 傅春)의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그리고 생원공(諱 季元)계 보은 종중은 11월 16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선영에서 입향조이신 휘 만복(諱 萬福)공의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 목사공파종회 총무이사 종익 記

재경화수회 산악회 소식

재경화수회 광이산악회(회장 종철)는 2024년 11월 24일(일) 오전 8시 지하철 5호선 강동역 3번 출구에 집합하여 참가인원을 파악한 후, 임대 관광버스에 탑승하였다. 버스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지나 경부고속도로 들어서 죽전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회원들을 태우고 산행목적지인 소금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산행 인원은 모두 37명이었다. 목적지인 소금산에 10시경 도착하여 다시 인원파악을 한 뒤 매표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산행를 시작하였다. 산행 코스는 578계단 → 출렁다리 → 데크 산책로 → 소금잔도 → 스카이 타워 → 울렁다리 → 에스컬레이터 타고 하산하니 12시가 되었다. 하산한 회원들은 소금산 버섯불고기 정식과 보리굴비, 녹두 감자전, 하늘출렁 생막걸리로 산행 의 피로를 풀고 화기애애하게 덕담를 나누었다.

재경화수회 산악회를 마치고

귀향하는 길에 여주에 있는 명성황후 생가에 들러 보고 산악회에서 제공한(낙지젓갈, 황태, 미역) 선물를 받고 무사히 서울에 도착하니 오후 5시 30분 이 되었다.

이날 산행에는 30,000원의 회비가 거출되었고, 산악회 회장 종철 200,000원, 전 산악회장 범수 100,000원, 대종회 상임 부회장 100,000원, 좌의정공파 종회 100,000원가 찬조해 주었다. 산행에 참석해 준 회원과 찬조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다음 산행은 12월 22일(일요일) 명일역 근처 식당에서 송년회를 겸한 점심식사로 대신하고자 하니 많은 종인들의 참석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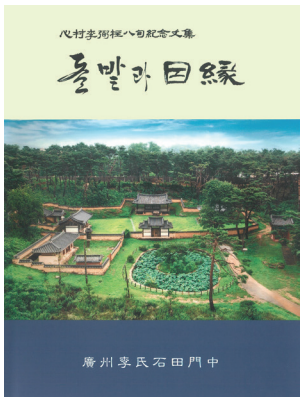
– 산악회 회장 종철, 산악 대장 종덕

용진 현종 배우자 "서정옥 화백" 작품 <장춘> 대종회 기증

광원군파 양진재공 후손인 용진 현종이 배우자인 서정옥(徐貞玉, 아호 寶泉) 화백의 작품 「장춘」을 대종회에 기증하였다. 이 작품은 137㎝×70㎝의 대작으로 푸른 소나무를 소재로 그렸다. 소나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 때나 고요할 때나 항상 우리의 자연과 어울리는 특질을 가지고 있고, 긴 세월을 두고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소나무는 정중하며 엄숙하고 과묵하며 고결하며 기교가 없고, 고요하며 항상 변하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잘 어울리는 까닭에 우리 민족의 심성을 사로잡아 왔다. 그래서 서정옥 작가는 2006년부터 한국인에게 남다른 사랑을 받고 미학적 가치를 지닌 소나무를 작품 소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정옥 작가는 구당(九堂) 이범재(李範載), 옥산(沃山) 김옥진(金玉振)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생에게서 사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견작가로 「대한민국 미술대전 한국화 부문」에서 입선, 「한국화 특장대전」 입선 등 여러 미술 대전에서 입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전 2회 등 수차례에 걸려 전시한 바 있다. 현재는 한국 소상회 및 창매회 회원으로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용진 현종과 서정옥 화백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장춘(長春) / 137x70cm / 화선지에 채색 / 2023

필주 귀암공 종손 팔순 기념 문집 출간



귀암 문익공(諱 元禎) 13대 종손(宗孫) 필주(弼柱) 현종이 팔순을 맞아 기념문집 "돌밭(石田)과 인연(因緣)"을 출판하였다. 필주 종손은 자서(自敍)에서 「선현들은 生이란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 남이요. 죽음(死)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인간의 삶을 정처없이 흘러가는 뜬구름에 비유한 것이다. 정말로 무상한 것이 人生이요. 허무한 것이 세월이다」라면서 「문자의 유구함과 박학을 하면 저술로 요약하여 글로써 남겨야 한다는 성현들의 글귀에 용기를 얻게 되고 또한 귀암종가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문집을 흉내라도 내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감히 여든 나이에 기념 문집을 펴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돌밭과 인연"이라는 책자는 그동안 돌밭과 인연을 맺은 여러 반가(班家)의 종손을 비롯한 자손들에게 정의(情誼)와 세의(世誼)를 갖고, 깊은 뜻을 지닌 분들과 오랜 세월 지켜온 집안끼리 인정과 우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인연을 회상한 주옥같은 글들을 거두어 들여야겠다는 은근한 생각이 드니 마음은 한결 무거워지고 조급해지는 심정이다. 그러나 막상 앞지르는 마음을 뒤따르지 못하는 걸음으로는 덧없는 세월만 탓해볼 뿐이다. 하지만 종손으로서 조상의 유업에 얽혀 내려오는 유학의 묵정밭을 김매고 가꾸려는 뜻을 세우고 이를 궁리하는 과정에서 더욱 풍부한 궁리거리를 마련하여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필주 현종의 호는 심촌(心村). 경북 칠곡군 돌밭마을 귀암고택에서 귀암공의 13대 종손으로 태어나 청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육군 중위로 예편 후 개인사업을 하였다.

현재는 종손으로서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을 행하며 각종 유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본 책은 서시(序詩), 축시(祝詩), 심촌문고(心村文藁), 돌밭 입향선조행적과 신도비명, 24인의 축하사(祝賀詞), 73인의 찬문(讚文), 20인의 축하서간문(祝賀書簡文), 부록 등으로 구성 편집하였다. 종인 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종인 시선

시제(時祭)
time ritual

종익 (목사공파종회 총무)

인간사의 인연이 다하여
하늘의 시간이 정한
순환의 섭리따라
자연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들에게 자연은 순환의
질서의 공간.

시대와 인간사는 강물처럼 흘러
하늘의 시간은 이 순간,
나에게 肉化한다.
시대와 문화가 정한
시간의 의식, 時祭.
계절과 자연의 산물에
靈性을 불어넣어
모심의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쪽빛 청명한 하늘
늦가을 내려앉은 산허리
하늘의 시간 따라 바람에 실려
자연으로 돌아간 이들
시간의 의식에 걸음 한다.

붉은 색감, 향내음 번져갈 즈음
설레임과 기다림이 함께한다.
사람, 사람마다
삶의 궤적이 다르지만
청아한 산공기에 감싸여
위안과 교감을 나누는 시간
모심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진다.

청아한 산공기에 감싸인
먹빛 이름들...
검붉은 불꽃에 타오르면
산허리에 붉은 기운 감돌아
하늘의 시간, 순환의 섭리에
산 빛으로 온 산에 비친다.

순환의 섭리는 예정된 질서.
돌아간 사람의 빈자리
남은 사람의 위안으로 채워진다.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2024년 11월 구독 및 찬조

이 름	금 액	주 소
이수육	10,000	대구 달서
이준석	10,000	충북 제천
이형재	10,000	서울 영등포
이승재	10,000	충남 홍성
이헌래	10,000	광주 북구
이용무	10,000	광주 북구
이기환	10,000	전북 순창
이종문	10,000	대구 달서
이춘재	30,000	전남 여수
이철재	10,000	제주 서귀포
이용승	10,000	부산 남구
이동재	20,000	경기 구리
이용옥	10,000	경남 양산
문경공파 준암공종회 10,000x14=140,000		
이학수	10,000	경기 과천
이종화	10,000	경기 평택
이종세	10,000	서울 금천
이종권	10,000	충남 아산
이화수	10,000	서울 금천
이길수	10,000	경기 평택
이종천	10,000	인천 남동
이종엽	10,000	경기 수원
이종덕	10,000	경기 화성
이정수	10,000	경기 성남
이문수	10,000	경기 수원
이장수	10,000	서울 영등포
이권수	10,000	인천 서구
이동수	10,000	서울 구로
부제학공종회 10,000x101=1,010,000		
이장래	10,000	경기 구리
임충식[이용식(선재모친)]	10,000	경기 고양
한상희(용옥)	10,000	경기 연천
홍완숙(용균)	10,000	경기 용인
이용만	10,000	서울 강남
이용직	10,000	서울 강남
이용정	10,000	경기 성남
이용환	10,000	경기 안양
이용석	10,000	인천 서구
이석재	10,000	서울 서대문
이성재	10,000	경기 용인
이완재	10,000	서울 서초
이성재	10,000	서울 종로
이만재	10,000	서울 강동
이안재	10,000	경기 평택

이 름	금 액	주 소
이무재	10,000	서울 송파
이현재	10,000	서울 동대문
이필재	10,000	경기도 평택
이철재	10,000	서울 강동
이승재	10,000	경기 성남
이민재	10,000	인천 남동
이두재	10,000	인천 미추홀구
이건재	10,000	대전 유성
이만재	10,000	서울 서초
이선재	10,000	경기 성남
이우재	10,000	경기 남양주
이철재	10,000	경기 양평
이봉재	10,000	경북 구미
이항재	10,000	인천 남동
이후재	10,000	경기 성남
이학재	10,000	서울 서대문
이운재	10,000	서울 강북
이경재(용균)	10,000	서울 강서
이광재	10,000	충남 천안
이성재	10,000	경기 시흥
이광재	10,000	서울 중랑
이관재	10,000	서울 송파
이관재	10,000	서울 송파
이만재	10,000	서울 양천
이후재	10,000	경기 의정부
이종각	10,000	서울 양천
이종암	10,000	서울 마포
이종일	10,000	경기 용인
이광수	10,000	경기 평택
이종훈	10,000	경기 평택
이종진	10,000	경기 고양
이종필	10,000	서울 강서
이종호	10,000	강원 원주
이종설	10,000	서울 강북
이종덕	10,000	서울 도봉
이종빈	10,000	경기 평택
이종찬	10,000	서울 동대문
이종남	10,000	경기 평택
이종철	10,000	서울 강동
이종무	10,000	인천 미추홀
이종혁	10,000	성남시 분당
이종석	10,000	인천 연수
이종근	10,000	경기 성남
이종필(창재)	10,000	경기 양평

이 름	금 액	주 소
이종호	10,000	인천 연수
이종운	10,000	서울 양천구
이종근(겸재 차남)	10,000	서울 은평
이종남	10,000	서울 광진
이종민	10,000	서울 강동
이종일	10,000	서울 은평
이종찬(완재)	10,000	경기 안양
이종우	10,000	서울 강남
이종일	10,000	서울 영등포
이종인	10,000	경기 안성
이종구	10,000	서울 성북
이종태	10,000	경기 안성
이종현	10,000	부산 강서
이종욱	10,000	경기 안성
이종민	10,000	경기 안성
이종명	10,000	서울 영등포
이종철	10,000	인천 서구
이종태(현재)	10,000	서울 동작
이종호(태재)	10,000	서울 금천
이종우(양재)	10,000	경기 안성
이종학	10,000	경기 평택
이종혁(무재)	10,000	경기 안양
이종열(왜관)	10,000	경기 광주
이종현	10,000	경기 안산
이종선	10,000	인천 미추홀
이종남	10,000	경기 군포
이종백(경호)	10,000	서울 송파
이종명(성재)	10,000	경기 하남
이종호	10,000	인천 남동
이승수(종열)	10,000	경기 의왕
이승수(종각)	10,000	대전 유성
이창수(종현)	10,000	경기 평택
이영수	10,000	경기 용인
이지수(종훈)	10,000	서울 강동
이영수(종건)	10,000	대전 동구
이영수	10,000	인천 미추홀
이헌수(종필)	10,000	전북 완주
이경수	10,000	경기 평택
이중수	10,000	경기 용인
이민수	10,000	인천 미추홀
이덕재	10,000	경기 부천
이종화	10,000	인천 서구

▶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봐주십시오.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만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농협은행 : 301-0290-6787-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동명이인이** 많으니
성명과 지역을 적어 보내시거나 **(예 : 홍길동 서울 또는 홍길동 종로)**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4年 12月 1日
<제405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이 주 영
編輯人 : 이 용 두
主 幹 : 이 주 병
發行處 : 광주이씨대종회

www.gwanglee.or.kr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31-8, 광릉빌딩 501호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1720@nate.com